

## ◇ 特別寄稿 ◇

## 參宴神遊錄

## 第3回 元老科學技術者 長壽宴

(80-9-5)

安東赫

지루한 석달장마의 끝무렵  
어쩌다 그 두터운 구름장막이 걷어 올려져  
찬찬한 햇볕에 찬 초가을 오후  
아직도 푸른 금잔디 위로  
산들바람에 흰 머리털 흐트리고  
이리저리 뭉켜 서서  
묵은 정 되새기려 서로 만나는 기쁨에 젖는  
다.

명단 총계 67인, 그중에는 故人이 끼여 있고, 거처 모를 7인 속에도 고인 이름이 보인다. 이 명단은 미진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古稀를 넘은 기술인의 수로서는 너무나 적다. 이는 우리 過去가 매우 弱小하다는 증거이다. 그중 약 절반이 참석했으니 잘 나온 편이며, 뜰 안이 老人으로 뿌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동안에 돌아간 분들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지나간 모습들이 되살아난다.

고 洪永杓翁은 나의 오랜 선배로서 서로 친해진 것은 1928년 여름 龍山가스공장에서 신세진 때부터이다. 고 尹柱福군이 그와 京城高工 동기, 尹군은 나와 大學 동기이니 친해지기 마련이다. 지난해 이른봄 아침에 道詵寺 앞뜰에서 그는 버스로 떠나는 참이었고, 나는 배낭을 지고 절로 들어서는 剎那에 흘깃 그를 보았으나, 그는 나를 못알아 본 것 같았다. 이 찰나가 52년 동안 交分의 최후순간이었다.

고 金允基박사는 내 전 처남 李英一畫伯의 어깨동무 都逢涉군(전 서울大藥大 학장 拉北)의 친구로, 그가 설계한 回基洞 都郡 집에서 33년부터 사귀었다. 이른바 溫良恭儉讓의 5德을 갖춰, 官

運도 이에 따랐다. 늦게 바둑을 즐겼는데, 對局 할 때에는 자진해서 두어점 더 놓는 謙德을 가진 분은 내 평생에 단 두사람뿐이었다. 그 만 친구 역시 나머지 4덕도 그만했지만, 出世길은 엉망이어서 수수께끼를 남기고 있다.

고 梁在義翁은 30년대에 그가 北支 天津電燈會社를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의 次席인 고 劉正華군이 내 제자이어서 知交가 이루어졌다. 전번 잔치에서 정정한 그는 비슬거리는 나를 위하여 養生秘訣을 伝授한 바 있어, 이제 그 효험을 檢討하려던 참에 他界하였으니, 이 숙제는 저승에 가거나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고 金魯洙老는 白峰 李采鎭소장(그가 내 뒤를 이어 工業研究所長을 10년이나 지냈기에 우리 주위에서는 모두 그를 소장이라 부른다)의 至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장남 고 金容崇군이 내 제자이어서 가까워졌다. 還都후 50년대 중턱에 나는 사실상 실업자이었는데, 그만이 지프차를 굴리는 감투를 썼기에, 우리는 그를 님시선생으로 모시고 近郊를 누볐다. 그는 또한 변통없는 愛酒家이어서, 님시 뒤에는 잠은 고기를 안주로 꼭 한잔 안하고는 못배긴다. 白峰은 술은 비상처럼 여기니까 나와 對酌, 그의 되풀이되는 잔말 대꾸는 白峰 담당이고, 술 실력은 내가 좀 더 센 터이니 내 수지는 괜찮았다. 님시터가 차츰 不毛化하자, 우리들은 골프로 방향을 돌렸는데, 白峰만이 핸디 35로 합격했고, 나와 그는 40의 특해도 못땀지만, 그 대신 우리 둘은 연습장에서는 서로 칭찬, 감복하고 나서, 이내 똑섬 대포집에서 장어구이와 막걸리를 즐겼다. 물론 님시킨 장어건 그는 절대로 社長 행세를 고집했다. 晩年

에 그는 步行이 붙여의었고, 나는 山으로 쓰다  
너 서로의 접촉점을 잃었다.

위의 兩金과 더불어 早大 理工学部를 나온 고  
朴元熙교수(漢陽大)는 30년대에 日本 保土谷曹達  
근무중에, 간장防黴劑 安息香酸이소부틸에스터를  
개발하여 日本서는 당시 評判이 높았으나 故國  
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尚州 豪家에서 태어나 고  
錢鎭漢翁(初代 保社部長官)과는 至交이며, 내 휘문  
동기인 李瑄根박사와도 막역한 사이였다. 初代  
特許局 審査長을 지낸 뒤에 晩景에는 病若에 시  
달리면서 교수생활을 했다. 그는 好惡가 분명한  
대쪽 같은 성미, 가끔 奇行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언젠가 在美中이던 李泰圭박사가 漢大  
研究所를 방문하였을 적에, 그는 유리그릇에 절  
반쯤 소금물을 담은 것을 들고 와서 이것만으로  
分子現象을 관찰한다고 외쳤다. 손쉽게 대응할  
줄 모르는 李박사의 말문이 막힌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그야 理論家は 연필 한자루, 갱지 한장  
이면 무슨 연구건 하니말이다. 그의 후배에 柳  
漢相군이 있다. 그는 早大 졸업후 延專 교수가  
되었다. 大型肥滿 金光偉선배의 매부이다. 日帝  
末期에 延專이 經專으로 파괴되자 하르빈麥酒工  
場長(京紡系) 일을 보다가 종전으로 귀국하여 45  
~50년간 商工部 化學課長·工業局長을 역임하였  
다. 誠實·公正·圓滿한 성격이 아니고는 이런 어  
려운 자리를 오래 지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시절 어느날 나와 白峰은 상의할 일이 있어 저  
녁이 지나도록 柳局長 집에 있게 되었는데 마침  
내 나온 저녁은 잠곡박에 무우채, 새우젓볶음  
뿐이었다. 물론 이는 그만이 청렴하다는 것은 아  
니다. 그즈음 白峰이나 나나 대부분의 기술직의  
살림살이는 거의 비슷했다. 나는 그 시절과 지  
금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우리 생활은 내외사정  
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변화를 겪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사변중 그는 拉北되고 그의 가족은 큰 고난  
을 치렀으나, 세월은 흘러 지금은 子女들이 그  
만 못지 않은 요긴한 일꾼들이 되었다.

고인 중에서도 羅益榮교수(서울대工大)가 가장 오  
랜 친구다. 25년 내가 高工 3년에 진급한 무렵,  
紅顏의 美少年인 그가 신입생, 후일에 工業局長  
으로 나를 도운 고 尹浩植군과는 겹동창, 羅少年  
의 안경과 好古癖은 그때도 그랬다. 요즈음 청  
년들은 高工과 工高를 혼동하고 있다. 高工은 獨

逸式 工大로서 대체로 工專에 해당된다. 나는 중  
간에 유학으로 3년간 출타했을 뿐, 50년까지 우  
리는 장장 4반세기를 한 울타리 속에서 지냈다.  
그가 孔陵洞 교실에서 쓰러지고, 나도 이어 臥  
病하여 往來가 거의 끊겼던 중, 77년 가을에 이  
웃에 사는 朴敬贊교수와 함께 拙著「殘像」을 가  
지고 가서, 한때 환담한 것이 마지막 상면이 되  
었다. 그때 그는 兵亂에 잃은 金石錄稿를 못잊  
어, 그 再現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후 과연 어  
느정도 건졌는지 모르겠다. 내가 遊山 중에 본  
金石에 言及했으나, 거의 모두가 그의 답사를 받  
은 것이었고, 다만 牛耳洞(그린 파크 뒷산 계곡)  
洪萬恢 墓碑만은 그도 몰랐다. 이 비석은 200년  
전의 碩學이며 名筆인 死者의 高孫耳豁 洪良浩  
가 글을 짓고 쓴 것으로서, 保存상태는 완전하  
며, 보호가치가 큰 문화재이다. 관계자의 주의  
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기 적어 둔다. 北漢山城을  
쌓은 名僧 聖能의 遺墟와 舍利塔이 太古寺 뒤 奉聖  
庵에 있다. 마땅히 舊基에 암자를 옮겨 復原하  
고 地方文化財로라도 保存할 만한 것이다. 또 留  
營一廢輔國寺址 內에 있는 肅宗의 文臣 李頤命의  
글과 글씨의 石刻도 그러하다.

羅선생을 생각할 때에는 工專 助手室에서 오랫동안  
옆책상에 앉았던 고 李海根선배(전 서울工  
高 요업과장)의 모습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는 내  
가 입학당시부터 助手였다. 상고머리에 짝달막  
한 肥黑漢, 神經이 날카로워 학생들은 꿈쩍못했  
다. 얼마후 그는 雞龍山으로 修道하러 떠나고,  
후임으로 고 盧炳湖선배가 나타났다. 그는 巨軀  
의 寬厚長者이어서 모두 좋아했으나 이어 教育  
界로 進出하게 되어, 이 자리를 羅군이 차지하  
고, 增員된 자리로 李선배가 되돌아왔다. 돌아  
온 그는 滿面春風 儒佛仙 3教에 통달하여 우리  
를 놀라게 하였다. 그가 우리 기술인으로서  
처음으로 修道見性한 默雷禪師이다. 해방후 그  
는 수염을 기르고 禪話 數卷을 펴냈다.

고 崔浩英교수(서울대工大), 그리고 고 朴勝敦군  
도 모두 同門이다. 崔박사는 咸興 名家출신, 내  
가 권유하여 日本 九州大学에서 金屬工学을 전공  
한 관계로 자별하게 지냈다. 그의 선친이 高血  
壓으로 早世하여, 그도 매우 조심했다. 내가 먼  
저 쓰러져 절절매고 있을 무렵에, 그 내외가 문  
병을 왔었더니, 그는 정년퇴직후 운동삼아 장작  
패다가 急逝하였다. 그들이 高工을 나온 30년초

는 世界恐慌의 餘波로 취직이 어려웠다. 그 시절에 酒稅技師를 시간강사로 위촉했더니, 이 분야에 기술지도원이 필요하여 많은 졸업생이 술도가를 돌게 되었다.朴君도 그 한사람으로 조작된 함정에 빠져 그나마도 失職하였다. 그때에 中央商工(京紡系 고무공업)이 擴張計劃을 세워 金容完사장의 요청으로 고·趙廣河박사(전 成大 총장)가 永登浦공장장으로 취임하고 그 밑에서 朴君이 기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世波에 부대껴 老成한 기술자가 되었지만, 趙박사는 실무에 감감한 학자이니 애가 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중 어느날 밤에 공장이 全燒하고, 京紡은 그 再建을 단념했으며, 이어서 해방이 왔다. 이 시절에 永登浦에는 豪氣당당한 趙박사, 여기에 京紡工場長 金東一박사, 그리고 新銳의 三共製藥 技師 閔寬植박사의 3傑이 모였었으니 그 會同의 요란한 光景을 可히 짐작할 만하다. 해방후 趙박사와 이따금 만나서 마시기도 했으나, 이미 그는 徹夜痛飲은커녕, 適量에 이르면 훌쩍 자리를 떴다. 朴君도 대단한 愛酒家이어서 醫師가 허락한 晩酌, 淸酒 한잔을 固守한 보람이 있는지 趙박사보다 오래 살았다. 지금 그의 산소에는 고무기술자들의 따뜻한 정이 어린 비석에서 있는 餘福이 있다. 돌아간 趙박사는 나에게 귀중한 餘德을 물려 주었다. 孟琦錫교수(忠南大工大)가 그의 名目만의 代役으로 나를 택하여, 新正마다 만나서 서로 반기는 행복을 얻은 것이다.

羅교수의 선친 羅元鍾선생은 교육가(中央高)이면서, 家産을 기울여 김치깡통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그의 令弟 羅運榮교수(서울大音大), 近親으로는 羅建榮교수(서울大醫大) 등 그 주변에는 天分이 두터운 분들이 많다. 작년에 내 딸 圭里가 줄라서 운동겸, 10년 전에 羅박사가 수술한 子宮癌환자들의 상황조사에 나선 일이 있었다. 그 대부분이 이사해서 헛탕이었지만, 그중에 한 건 長位洞 尹家の 맛머느리를 만나 面談하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이 집은 내 外家の 世交로서, 이분의 남편은 그동안에 별세했고, 90에 가까운 시부를 모시고, 건강하고 명랑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羅박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늘 지니고 있다』고 대답했다. 만약 이 수술이 잘못되었더라면 이 古家は 아마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렸을 것이다.

고 羅基瑚교수(延大)는 젊어서 미국 컬럼비아大學 化學科를 졸업, 軍政때 商務次官을 지냈다.

사변후 다 늙어 다시 모교로 가서 地理學박사가 되어 延大교수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그의 妹氏가 내 처의 제모임이 뒤늦게 밝혀졌으니 기이한 인연이다.

고 羅景錫도 비단 全民濟 全 엔지니어링 社長의 岳父이라서만이 아니라, 직접 접촉으로 印象의인 분이었다. 그는 늘씬한 몸매에 豪放한 성격을 지녔지만, 人情에 약한 면도 있었다. 그의 선배 고 李康賢은 우리 섬유기술계의 선구자인 바, 사변전에 現 科技總의 前身이라 할 韓國技術總協會 회장이었는데, 회원들의 불만을 사서, 나더러 그에게 사직권고를 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난처해서 羅翁에게 要請했더니, 그는 뜻밖에도 아주 풀이 죽어서 그런 말은 선배에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바람에 이때 舉論은 흐지부지된 일도 있었다. 나는 직업상 무수한 아이디어 맨들과 상종하였다. 그중에서도 羅翁, 고 全用淳 大韓商議會長, 고 李根澤 平和堂社長, 金光燁선배(前出現美보잉航空機社 간부연구원 全啓相박사의 장인) 등 여러분이 빚어낸 逸事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羅翁은 藏前高工 應用化學科 출신으로서, 滿洲서 고무공장을 운영하다가 귀국하였는데 맞는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釜山 피난중 그는 어느날 돌연 模造眞珠 根本과 자료봉지를 가지고 來訪하였다. 제물진주광을 내는 유리알을 만들어내라는 청이다. 나는 이 과제를 李範純박사에게 넘겼던 바, 그는 이 봉지도 과제도 몽땅 잊어버렸다. 얼마후에 나는 外地에서 虹彩 모조진주를 보고 놀랐다. 그런데 그는 내 失手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다. 그의 말로는 奉天 居留時에 자주 日本 등지에 갔는데 서울을 통과할 적에 문득 생각이 나면, 下車해서 夫人께『나 외입 좀 하고 가요.』하고 電話한 뒤에 흡족할 만큼 놀고 갔다 한다. 그의 활달한 성격도 그렇지만, 夫人의 관대함도 비범하다 하겠다. 실수의 또 하나… 全用淳사장(金剛製藥)은 解放 직후에 白色네온燈을 연구해 달라고 要請해 왔다. 나는 조사후 가스放電으로 白色燈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때 그는 가스放電에 拘碍할 것 없지 않느냐고 反駁했다. 48년에 나는 미국서 全사장을 만났고, 白色螢光燈도 보았다. 事業家は 과학기술자와는 다른 幅넓은 情報나 아이디어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새겨 듣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고 朱耀翰회장이 희한한 英才이며 우리 文學

의 선구자임은 역사책에 써어 있다. 그가 日本의 登龍門 一高에 든 것도 다들 알지만, 中國 大學에서 化學을 전공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많다. 나는 文章을 읽기를 좋아하기는 하나, 쓰는 것은 딱 질색이며, 文人과 어울리는 기회도 없었다. 知面이라면 八峰, 月灘선배와 岸曙, 白南정도, 芝溶은 그저 동기이고, 孝石, 李箱, 素雲은 서로 얼굴은 알았지만 談笑를 나눈 기억이 없다. 물론 公席上에서 만난 분들은 논외다. 그런데 고인은 公席上에서만 만난 가장 오래 아는 文人이다. 그와 첫대면은 和信 전무시절이었는데, 그때는 明敏한 사업가로 보였다. 해방후 그가 文學잡지를 주관했을 적엔 文人으로 되돌아가는 줄 여겼고, 그때 잔뜩한 집필권유를 받았으나, 나는 소위 文章을 쓸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釜山 피난중에 나는 統絃했는데, 내 새 처가와 朱家是 친근히 지냈고, 내 장인 고 金宗鉉翁은 중국 上海에서 그의 大學시절을 지켜 보았으며, 『그가 뛰어난 재주로 全校의 人氣를 끌었고, 名媛의 청혼도 있었지만 끄떡도 안했다』 한다. 내 인상으로는 그가 民主黨에 들어가 熱을 올려, 半바지차림으로 東奔西走하던 시절이 最高였는가 한다. 5.16혁명후 그는 大韓日報를 도우면서 내게 말하기를 『後世에 남을 글을 쓰고 싶다』 했다. 그래서 그후 나는 그의 글을 유심히 읽었으나, 별다른 감명은 받지 못했다. 아마 그의 환경이 會心의 글을 쓸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다. 會席上에서는 그와 나는 흔히 의견이 대립되었으며, 대개는 주최자의 뜻을 존중하는 그의 주장대로 落着된 줄 안다. 과연 그는 회심의 문장을 썼는지, 미발표원고가 어딘가 남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平生 所願을 못이루고 不歸의 客이 되었는지, 가끔 궁금히 여긴다.

朴榮壽君도 돌아갔다. 내가 29년에 京城高工 강사가 되었는데, 그 해에 朴君이 입학했다. 이應化班에는 한인이 5인, 그중 3인이 각각 頭角을 나타냈다. 3朴중 가장 성실한 朴政煥君은 졸업후 나를 도와 浮選試案에 관한 報文 2편을 썼다. 고 朴曾桓君은 홀삭한 키에 超然한 人品, 내가 工研 所長시절에 申允卿박사의 뒤를 이어 窯業部長이 됐다. 諸事에 원만하였는데 50년 9.28 수복을 며칠 앞두고, 격전지이었던 京元線 德亭里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고 朴榮壽君은 큰 키에 건장한 몸매, 순 咸鏡道 기질의, 일에 당하

여 몸을 돌볼 줄 모르는 굳센 성품이었다. 졸업후 慶北道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日帝末 石油문제가 심각해지자 中央에 발탁되었다. 木炭가스버스의 실현은 그의 發生炉筒 개발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 생활에 莫大한 도움을 주고 있는 九孔炭연소통의 創案者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源流가 여기 있을 법도 하다. 그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나, 그의 直線的 기질은 성공보다는 고생을 초래했다. 내가 臥病한지 해가 지나서, 그는 突然 찾아와서 ○○道에 들면 당장 좋아진다 하며, 제 권고를 안듣고 팔팔 앓고 있는 꼴은 보기 싫으니, 발을 끊겠다고 폭탄선언을 하고 갔다. 그래서 나는 몰래 그 道場을 기웃거렸지만, 인연이 닿지 않은 탓이었는지 싫어서 入信을 거절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과연 그는 3년이나 나타나지 않더니, 다시 풀어져서 交遊를 회복하였다. 아마 그의 끈질긴 神經痛이 이道로 물러갈듯 했더니, 그도 신앙이 모자라 失望한 까닭인지도 모르겠다. 늙어 그는 喪配하고, 얼마 안되어 夫人을 따랐다. 내 주위에는 드문 波瀾 많은, 그러나 용감한 男子이었다. 이 클라스에 고 崔在殷君이 있다. 당시 蹴球界에 花形으로, 아마 지금도 옛날 팬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고 朴衡鎭君(전 全北 商工課長), 고 李朋林君(전 全南 商工課長)은 모두들 동창이었고, 두사람이 다 解放후 혼란기에 公務에 시달려 사실상 殉職한 人材들이다. 李台燮박사(化工)가 그의 命關인 줄 기억하고 있다.

고 朴昌培翁은 工專 紡織科를 마치고 미국서 電氣工學을 배웠다. 그때 마침 渡美한 日本技術界의 巨人이며 財閥인 野口運 朝壘 社長の 知遇를 받아 朝鮮電業에 入社했다. 이런 일이란 그 시절에는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려운 것이었다. 日帝때 나는 그가 管理하고 있는 咸鏡道 산골 水力發電所에서 그를 만났다. 아주 온화하고 겸손한 분이었다. 그의 훨씬 후배인 고 金汶尚교수(서울大工大)는 34년에 입학한 온후장자의 모습을 지닌 好漢이었다. 졸업후 그는 沙里院에서 機業 지도를 하고 있었다. 종전이 되자 그는 남하하여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京城工專 校長으로 특히 紡織科 교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던 판에, 그와 禹範植교수가 들어와서 간신히 개강했다. 이 두 교수가 서울大 工大에 一生을 묻어 정년을 넘긴 것을 나는 높이 치하한다.

고 郭尙勲翁이 京城工專 방직과 재학중 3.1운동에 참가하여 중퇴하고 독립투사가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내가 23년에 입학하여 官學인데도 강한 排日분위기가 한인 간에 감돌고 있는 상태에 놀랐다. 고 金大羽선배(전 慶北知事, 鉅山科)가 그때 2년형을 받았고, 고 尹弼淳, 그리고 金顯哲선배(모두 광산)는 日本, 미국으로 갔다. 金顯哲首班과 동기인 고 李治奎, 고 韓珣鉉(應化) 두 선배는 내 은사이다. 「韓國繪畫大觀」의 巨作을 펴낸 고 劉復烈翁은 金大羽翁과 동급, 不屈의 강철 같은 体力과 意志를 가진 분이었다. 그의 美術愛好는 先代적부터의 家風이며, 韓國考古學 및 美術史로 命名이 높은 金元龍교수(서울대)는 그의 愛婿이다. 나는 오랫동안 고인의 각별한 知遇를 받았고, 그의 晩年 苦難시절에는 가끔 新新茶房에서 담소했다. 이리 지내던 중이 근처 공사장에서 떨어진 조약돌이 머리털이 적은 그의 머리뼈를 뚫었다. 生前에 그의 令愛가 손수 가져온 古畵 한폭을 보면서, 나는 이 그림이 가야 할 제자리를 곰곰 생각한다. 그가 준 遺著는 내 藏書와 함께 지금까지도 나를 아껴 주는 漢陽大의 中央圖書館에 있고, 다른 한 책은 外友의 요청으로 내 손을 떠났다. 그의 先代 이래 수집한 國寶級 그림들은 漢大博物館에 모여 있다. 이 그림도 마땅히 여기 합쳐져야 하겠지만, 이는 고인이 안다면 혹시 화를 낼 것도 같아서 망서려진다. 우리 炭礦技術界의 선배인 고 金基德翁은 앞의 尹 박사과 동기, 순순한 好人, 一生 동안 말쟁 많은 우리 炭礦은 그의 지도를 받았다.

내가 商工部에 들어가자 여러 專門家가 희생적으로 나를 도왔다. 電氣는 尹日重선배, 水産은 鄭文基박사, 鉅山은 金鍾射동문 등, 내가 한 일에 큰 잘못이 없었다면 이 분들의 도움의 덕이다. 그때 鉅務局長이 비어서 金동문이고 崔裕久翁을 주선했다. 그는 곳곳한 성품이어 일을 올바르게 하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얼마 안되어 그는 가사관계로 퇴관하고 당시 商工部の 두 秀才, 陳鎰鍾鉉政課長이 鉅務局長으로, 그리고 이어서 申鉉礪工政課長이 電氣局長으로 각각 승진하여 활약하였다.

郭翁의 학생시절에 기술출신의 독립혁명투사로 平生을 묻어, 그와 雙璧을 이룬 李駿烈翁(應化)은 沈重大度 간절하고도 위엄있는 분이었다. 郭翁의 朴訥과도, 또 그 거창하고 바위 같은 몸

집과는 대조적으로, 李翁은 좀 뚱뚱하고 짝달막해 보였고, 입만 열면 靑山流水, 아무도 反論할 여지가 없었다. 日帝彈壓期에 이 두분이 치른 고초는 지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해방직후 李선배는 朝鮮工業技術聯盟을 主導하여 많은 功績을 이룩했다. 現在의 科技總과 여러 工科系學會도 여기서 發端된 것이다. 이 時期 45~50년 간의 그 잘잘못은 正當한 評價를 받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이때처럼 技術人이 뭉쳐서 國家社會를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 그때 그 混亂期에 기술연맹의 활동이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무기력 또는 政略놀음에 소모되었던들, 아마 지금의 공업사회 운운은 꿈도 못꿨을 것이다.

解放後 좀 나이가 든 기술인들이 친목을 위하여 모인 일이 몇차례 있었다. 그 첫번은 秘苑에서 가진 野遊會이었다. 여기서 처음으로 郭翁을 뵈었다. 이때 참석자의 많은 분이 작고했다. 그 最古參의 한분인 고 朴璋烈翁은 당시 서울工高校長이었고, 한인으로서 처음 東栢油에 관한 研究報文을 日本의 學會誌인 「工業化學誌」에 발표한 분이다. 나의 高工 동기 고 李柱冕君(統營水産 교유)는 그와 姻戚이어서 知交를 얻게 된 이래 각별한 애호를 받았다. 그 인연으로 그의 親弟가 해방후 工專 일을 맡아 보았고 原子力의 梁在炫박사가 姪婿이어서, 사람의 인연의 거미줄이란 자기도 모르게 얽히고 퍼지는 것이다. 그가 校長때 어느날 怒發大發해서 필필 뛰기에 가 보았더니 駐屯軍이 강당을 클럽으로 쓰고 있었는데 四壁에다가 요란한 希臘獸神들이 裸體妖婦 님프들을 뒤쫓는 影畵 群象 때문이었다. 忠淸道 양반인 그의 풍습으로서는 기가 막혔던 것이다. 그즈음 나는 李駿烈 고 金容瑾, 李相線 등 몇몇 선배에 끼여, 번갈아가면서 저녁을 즐겼다. 金선배는 우리 窯業界의 선구자이며, 30년초에 朝鮮發明學會를 창립하고 잡지 「發明朝鮮」, 뒤에 「科學朝鮮」을 창간한, 우리 科學·發明振興의 선구자이다. 나는 30년대에 그의 권유로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名義人은 고 愛山 李仁선생이었고, 愛山의 아우 李應虎선배도 재학중 독립운동으로 獄苦를 치르고, 이로 인해 졸업한지 얼마 안되어 病死했다. 日帝의 탄압으로 이 사업은 고 元翊常목사가 고 尹致昊翁을 당시의 志士고 金昶濟와 협력해서 모셔들여 朝鮮科學知識普及會로 변형하여 계속하였다. 이즈음 고 劉錫昶

박사(建大 設立者)도 이 일을 도와서 나와 서로 알게 되었다. 금일의 科學의 날 行事도 金容璫 선배의 創案이다. 이분의 옹고집은 아무도 당해 내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말이 라면 무조건 봄바람에 눈눅듯 스러졌다. 白峰과의 두 고집 대립은 가끔 極限에 이르는 것이지만 폭발은 면했다. 晩年에 金東一박사와 자주 접촉하였는데 상당한 逸話를 남겼을 줄 안다. 白峰과의 討論에서 金容璫翁의 功勳은 그 모든 雜音에도 不拘하고 뚜렷한 것임을 다시금 認識하고 감탄했다. 나는 여기서 政府가 適切한 때에 고인의 업적을 顯彰하는 데 留念하기를 바란다.

遷都後에 고 閔漢植老(전 土木局長)가 그의 광활한 정원에서 몇차례나 故老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모임에서는 특히 建設분야의 長老들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고 崔景烈老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의 한사람이었다. 우리나라近代技術史에서 그와 고 朴吉龍선배(建築)는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다. 崔局長은 당당한 偉軀에다가 순직한 마음이 담겨 있어 白峰이 훌쩍 반했다. 平素에 여러가지 포부를 가졌었지만, 그 하나도 시험해 보지 못한 채 떠났으니, 참으로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다.朴선배는 날씬한 몸매에 明快한 藝術家 타입, 長安 花街에 多少의 令名을 얻었던 줄 기억되며, 그의 愛酒와 耽美는 壽命을 줄였을지도 모른다. 東亞日報 社屋의 설계자이며, 최초의 성공적인 건축設計家이었다. 당시 朴, 崔는 매스컴을 타서 기술자로서는 유례없는 인기였다. 고 金東洙군은 여러점에서 朴선배의 뒤를 따랐고, 고 李孝順군은 당시로서는 드문 帝大출신(京都)의 건축가로서, 泰昌織物 回基洞工場을 설계, 감독하였다. 金, 李 양군도 상당한 酒黨이었어도, 그들의 早死는 술 탓은 아니다. 李군은 티푸스로 가고, 金군은 그의 先親이 天道敎의 중진이었던 관계로 사변중 가족과 함께 人民軍의 銃擊으로 참변을 당했다. 閔局長이 돌아간 후 오랜 뒤에 KEC(韓國엔지니어클럽)가 본격적인 잔치를 시작하여 우리들을 즐겁게 해 준 데 대하여 나는 후배 제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故人들의 生涯와 功業은 반드시 正確히 記錄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나는 직접 받은 고인들의 인상의 몇조각을 열거하여, 그들을 추모하는 기틀을 삼고자 하였을 뿐이다. 내

기억의 불충분한 점을 補正하기 위하여 나는 白峰과 오랜 시간 면담하였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가장 광범한 交友를 가진 技術人이기 때문이다. 이 면담에서 나는 당장에 위에서 빠진 여러 선배와 同志들을 찾았다. 우리는 우리가 故人들을 잊으면 그들의 功績이 아주 잊어버려지거나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만이라도 적어 두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중에는 生死不明의 분이 2人쯤 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 실수를 곧 밝히기를 바란다. 많은 의심스런 분은 살아 계신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제외했다.

### 数学

柳一宣목사, 李春燾 서울大 2代總長(延專, 미국), 白僊 崔奎東 서울大 4代總長, 安一英 中東교사, 金顯璋 徵文교사, 崔允植 서울大文理大學長(日本 東京帝大), 張起元 延大副總長(日本 東北帝大), 辛永默 仁荷大교수(全上)

### 物理学

張廣震 海州高女校長(東京高師), 李源喆 初代觀象台長(延專, 미국), 朴哲在 原子力研究所長(延專, 京都帝大), 鞠採表 2代觀象台長(延專)

### 化学, 応用化学, 窯業

朴正銑 중추원촉탁(日本 藏前高工), 鄭○○東亞大교수(카나다), 金潁南 崇田大理事長(미국), 劉銓自營(京都帝大), 李沄鎔 中央放送局長(京城工專, 窯), 鄭泰河 京電理事(미국), 權錫圭 中央試驗所員(京工專), 許煥 順天工高校長(全), 朱鍾宣 普成校長(全), 柳延洛 好壽敦교사(全), 趙漢宗 普成교사(全), 趙龜淳 서울工高校長(全), 金浩植 水原農事試驗場長(日本 九州帝大)

### 機械工学

尚瀨 全南道參與官(東京帝大, 造船), 朴敬洙 專賣局技師(大阪高工), 金昌教 自營(東京高工), 愼鑄鐸 大韓航空社長(日本飛行), 黃泳模 서울大工大學長(京都帝大).

### 電氣工学

韓雲教 培材교사(藏前), 李泰煥 京電社長(미국), 柳東辰 國務總理秘書室長(東京高工), 金鍾秀 京電理事(大阪高工) 朴萬西 南電社長(미국)

## 纖維工学

金鶴瑞 自営(京工專), 金丙運 京紡技師長(全),

## 土木工学, 建築工学

鄭在英 總督府技師(京工專), 朱洛龍 全南道技師(全), 元泰常 서울대工大교수(全), 孫民秀 朝堂社員

## 鉱山工学, 冶金学

文源周 自営(京都帝大), 金龍震 自営(日本 秋田 鉱專), 金命鍊 自営(京工專), 安鳳益 大重社長(全)

이 名單을 바라볼 때에 가슴아픈 것은 많은 친구들이 以北에 있어 그 生死조차 알 수 없는 일이다. 한두분 간접적으로 알려진 분은 넣어 두었다.

數學분야에서 柳목사는 中學生적에 忠信洞宅에서 뵈웠다. 검고 뚱뚱한 친절한 분이었으며, 古版本을 열심히 닦고 계셨다. 有名한 算術책, 그리고 日本말로된 說敎集도 저술했다. 金顯璋 선생은 내 은사. 내 代數실력은 이분 덕이다. 白儼은 50년 사변 며칠 전에 官舍에서 뵈운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해소로 매우 쇠약해서 앉아 있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漢陽大 司空烈교수(化)의 선친인 고 司空桓교장의 추모록이 文敎잡지에 남아 있다. 李 총장은 좌담의 名手, 그의 유학회고담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큰 부채를 스승에게 드리려고 渡美船中에서 고생하면서 다 루던 장면은 좋은 面題가 될 법하다. 張박사도 자상하고 엄정한 분이어서 그의 弟子 고 박哲在 박사는 환갑이 지난 뒤에도 그를 어려워했다. 崔 박사는 동료로 20년 가까이 같이 지냈으니 슷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 다만 崔至薰교수(서울大 數學)가 그의 막내로서 家業을 이었음은 다행하다 하겠다. 辛永默교수는 내가 교장시절에 교무주임, 朴東吉박사의 처남이다.

物理에서 張 선생은 내 思師이시며, 내 친구 李宗日박사(在美, 東京帝大, 電氣)의 장인이다. 젊어서 寺內總督 암살음모사건에 말려들어 獄苦를 치르셨다. 가무잡잡한 중키의 상냥한 분이지만 잘못하면 벼락같은 꾸중이 내렸다. 李源喆박사가 미국서 新星을 발견한 일, 朴박사가 日本서 고무結晶의 X線圖를 決死的으로 찍어낸 일들은 우리 과학자의 모범이 된다. 李박사는 만년에 仁荷大學長이 되어 나와도 가끔 만났는데 그의

漢學은 家學이어서 요즈음 古典家들은 어림도 없다. 朴박사, 그리고 在美 朴達淸박사의 연구가 그 논문만 보고 그럴사 여겨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다. 이들의 실험은 생명이 왔다 갔다하는 것, 身命을 아끼는 사람은 감히 못견드리는 일이지요, 이 두분이 外國서 外國人을 물리치고 成功을 거둔 것이다. 지난날 朴박사와 더불어 金容完사장의 城北洞宅에서 初面에 철야통음한 기억이 어제 같은데, 그리고 金社長은 우리네 窮生을 위하여 酒席을 베풀고 가끔 金良瓊(農化, 越北), 趙應河박사와 나의 그 귀찮은 잔말을 밤새도록 견디어냈다. 朴박사는 편모슬하에서 장성하여 母堂 安氏에 대하여 至孝, 그래서 安氏라면 好意를 갖는다. 孝子로부터 波及하는 餘德이라 할까, 내가 姓 때문에 기분좋은 적은 朴박사와 만났을 때뿐인 줄 안다.

化學에서 朴翁은 旧韓國시절 留學生이다. 내 高普 동기인 고 朴永仁군의 엄친이어서, 어려서 뵈은 탓인지 그저 무서운 老人으로 느꼈을 뿐이다. 내가 요행으로 首席으로 나온 까닭인지 졸업후에는 그 집에서 대우가 매우 좋아졌다. 그런 중에 朴군이 韓末의 風雲兒인 玄英運家の 사위가 되는 첫날밤에, 同門 惡少들이 신부집에 토벌하러 갔더니, 大門을 굳게 닫고 不應하므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는 시늉을 하는 패거리가 있었다. 그러니 색시집에서 아우성이 났다. 나는 물론, 자칭 호걸들도 죄다 도망쳐서 귀가했다. 며칠후 朴군 집에서 청해서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나, 朴翁이 나타나 엄중문책하는 바람에 혼이 떠서 음식맛도 없어졌다. 사실인즉 우리가 장난치는 기회에 동네패거리가 편승하여 실익은 그들이 본 것이었다. 그때 풍습도 좋다 할 수 없지만 요즈음 함을 질머지고 야료하는 풍속도 그만두었으면 한다. 그때 藏前 졸업생명부에는 數 10 人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行蹟을 밝힐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劉銓翁이 吳植洙사장의 스승님이리라는 것은 白峰의 추측이나, 이로써 우리 4인이 자주 어울리게 된 연고가 비로소 解明된다. 白峰의 推理로는 劉翁이 日本서 귀국하자 獨立志士 金奎植박사가 교장인 敎新學校에서 교편을 잡았으리라는 것이다. 劉翁이 퍼낸 實用色染法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기술서일 게다. 李云鎔老가 工專 선배인 것은 확실한데, 어떤 연유로 방송국에서 一生을 지내게 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 내가 방송국에서 그 사연을 들은 것 같은데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다. 日帝때 내가 방송하러 가면 岸曙가 우선 반겨 주고, 또 調整室에는 내 소학동문 李漢用형제가 있어서 즐거웠다. 岸曙와 가까워진 까닭은 방송 때문인지, 가까워져서 그 때문에 방송에 응했는지 아리송하다. 혹은 동기에 朴東鎭君(건축)이 春園, 岸曙와 아주 가깝게 지내서 그리웠는지 미심하다. 李선배는 대단한 酒客으로서 코가 늘 붉었고 옛날이야기가 속사포(기관총)식으로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李淳鎔선배(전 內務部長官, 京工專)와 같이 학교를 다녔고, 汚鎔군(내 高普 동기)과 모두 동기니 할말이 많을밖에 없지 않은가. 일전에 汚鎔군이 찾아왔는데 옥색 한복에 灰色인 바네스를 두르고 경계화에 삼승겹버선을 신고 있었다. 아무리 구한국 대신 집안이라도 이렇게 질긴 풍습은 보기 힘들 것이다. 이 3형제는 모두 호리하고 날씬한 모습이며 상냥한 성격이다. 趙교장은 나와 곽동창, 세번이나 喪妻했다. 芝溶과는 同鄉이었다. 大邱의 나이는 분들은 대개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鄭선생의 名字가 기억난다. 往年 東亞大 실험실에서 80高齡으로 의자 위에 도사리고 앉아서 학생을 지도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전세기말에 캐나다 대학에서 B. Sc., 平壤서 오랫동안 고무공장을 경영하였다. 아마 化工분야에서 最古參일 것으로 여겨진다. 權선배는 分析의 名手, 中央試驗所報告第1卷 第1號에 그의 첫 報文이 실려져 있다. 좀 약골로 늘 미소를 먹음은 암전한 분이였다. 원래 中央試驗所나 工專이니 工業傳習所, 더 올라가서 典園局은 藏前의 先生이 와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모두 藏前판이었고 그중에 中川이라는 이는 金屬分析에서 호탕이어서 學士건 博士건 실무에서는 배겨나지 못하였는데 단지 權선배만이 그의 눈에 들어 印可를 얻었으니, 그의 分析솜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金浩植군은 農大지만 내 대학 동기다. 좀 뚱뚱한 巨漢인데 藥중독으로 서거했다. 生前에 가끔 고 金浩植박사(水原高農, 日本, 미국유학, 植物學專攻)와 혼동되어 喜劇을 빚었다. 이 분은 植物學 외에도 모르몬敎의 한국開拓者로도 有名하다. 生物, 醫藥, 農林쪽은 좀 생소하여 터치안하려 했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交分이 있던 분들의 名字만 들어 두겠다. 鄭台鉉(植物), 趙福成(昆蟲),

石宙明(나비), 金東赫(動物), 尹丙燮(植物), 安在鶴(植物)의 여러분의 모습이 우선 곧장 떠오른다.

造船의 尚선배는 내 전 처가 고 李圭完옹의 집에서 만난 듯한데, 白峰 말로는 지극히 순한 점잖은 분이였다 한다. 내 장인은 가끔 그가 전문기술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말하였다. 金, 愼 두 사람은 내 高普 同期다. 金은 自動車狂, 愼은 飛行機狂, 그들의 生命을 여기다 불살랐다. 黃학장이 李升基박사의 뒤를 이어 工大학장이 되었을 때, 교수가 모자라는 판에, 그는 퇴관하고 빈들거리는 나를 주목하여 시간강사로 청했다. 나는 매주 하루를 孔陵洞에서 지내기로 하고,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재미였다. 그는 때때로 지프차로 나를 데리고 東廟 옆 兄弟酒店에 가서 서비스를 했다. 그때는 이미 건강이 나빠져서 추탕만 들고, 나는 酒食 모두 OK. 어찌다가 동행하는 李廷紀교수 말마따나 液体, 固体를 가리지 않고, 궁한 판에 무엇이건 多多 益善이었다. 이 썸에 나는 工大강사로 10년을 奉仕하게 된 것이다. 사실인즉 나는 서울大와는 가깝고도 멀었다. 46년에 서울대가 창설되자 내 工專 校長職은 제물로 없어지고, 李泰圭박사는 工大學長이 되기를 강요했다. 그때 나는 高等教育委員으로서 이 併合계획에 관여했어야 했는데, 사실인즉 무대 뒤에서 꾸며진 것이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工業大學을 만들 계획으로 文教部 승인을 받아서 學生모집 公告까지 냈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美人들은 나를 만나면 그대는 더 좋게 되는데 걱정 말라지만 마음에 싫증이 났다. 그보다도 나는 工業研究所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50년 崔奎東총장, 이어서 53년 崔奎南총장의 요망에도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54년 퇴관 후에는 더우기 官學이 싫었다. 그런데 黃學長의 추어탕은 내 기분을 풀리게 했다. 日帝시절에 나는 가끔 兄弟酒店에 갔는데 대개는 술은 친구가 마시고, 안주는 내가 먹었다. 그때는 교수가 목노집에 드나드는 것은 체면이 깎인다고 싫어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추운 날 여기 들어갔더니 내 英語선생님이며 同僚인 長身白髮의 伊藤老人이 洋服에다가 핫도루마(黃苧) 두루마기를 걸치고, 이 찻찻하고 매웁고 비릿한 국을 열심히 賞味하고 있었다. 그는 珍味狂이어서 거기다가 信者니, 그와 同行하면 술은 내가 마시고, 안주는 노인이 차지하기로 했다. 목노에서는 술

한잔에 안주를 꺼 주지만 안주만 먹으면 따로 돈을 내야 했다. 나는 新設洞에서도 오래 살았어도 여기 자주 다니지 않았지만, 환도후 이 동네를 떠난 까닭에, 이래 저래 유난히 감상적이 됐던 것이다. 黃학장이 돌아간 후에 나는 이 곳을 찾은 일이 없다. 이 집도 폐업한지 오랜 줄 안다.

電氣分野에서 柳군은 高普 동기이다. 날씬한 재간이 넘치는 친구이다. 金理事와 더불어 京電의 古參이었다. 柳군이 내 대학동창 金鍾射, 李東九 등 여러사람과 더불어 東星商高에서 고 張勉校長(후일의 國務總理) 밑에서 교편을 잡았던 관계로 맞지 않는 감투를 쓰고 苦役을 치렀다. 金老는 大邱郊外 屈指의 豪農출신, 長身の 無骨好人이며, 그의 親弟 金鍾元군이 내 제자이며 助手여서 자연히 친해졌다. 돌아간 故人이 아니라 산 친구란 의미로 朴萬西 南電社長이 문득 생각한다. 朴사장은 고 李承晚대통령의 特命으로 戰災復旧을 돕기 위하여 일시 내한한 교포 2세대. 溫良하고 正直한 분으로서 誠實하게 노력했다. 내가 商工部에 있을때 고 李弘植 韓電社長(李商在 선생의 長孫)과 確執이 생겼는데 그는 이를 무마해소하려고 무척 애썼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내가 퇴관한지 얼마 안되어 그는 하와이로 돌아갔다. 그도 벌써 70객일과 여긴다. 韓雲教 선생은 電氣分野에서 最高長老이었다. 尹日重翁보다 2년선배라 한다. 電氣다리미를 發明하여 주목을 끌었다.

纖維에서 金鶴瑞사장은 北支서 활약했었고, 그때 그의 아름다운 夫人과 함께 北京서 뵈웠다. 환도후 機業에 성공하여 내집 뒤에 巨屋을 짓고 살았었다. 자상하고 商機에 기민한 분이였다. 金丙運군이 戰亂으로 불탄 京紡工場을 赤手로 再建한 功勞는 오래 여러 工場의 모범이 되었다. 金澤南 全南紡社社長도 再建, 擴張, 經營에 성공한 분이다.

土木의 元泰常박사도 동창이다. 그의 奇行은 아마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孫군은과는 다르나 내 동기로서 朝鮮窒素 興南工場 建設工事を 도왔다.

鉦山출신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巨物級이 많다. 그밖에도 여기 적은 분들은 상당한人材이었다. 文社長은 큰 鉦業기관의 요직을 역임하고, 독자적인 雄飛에 착수했는데 병마가 이를 막았다. 金龍震사장은 패기에 찬 모습으로 文社

長의 重厚한 모습과는 판판이다. 病中에 외출한 채 行方不明이 된지 오래다. 尹璉淳박사도 그랬다. 安鳳益군은 한때 大重사장으로 군림했다. 長身巨軀, 實踐力이 강한 사람이다. 그도 모르는 곁에 나로 하여금 사업에 대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었다. 金命鍊군은 金鉦으로 성공했다. 모두가 過勞로 早死하였다.

돌아간 여러분의 최후를 나는 거의 지켜 보지는 못하였다. 그들의 勞苦와 功績에 비하여, 거의 모든 분의 晩景은 쓸쓸하고 괴롭고 가난했다. 이와는 反對로 外國人 동료나 弟子들은 거의 모두 괜찮았다. 그러므로 여기 과학기술자의 生涯에 韓國의 欠陥이 있음이 明白하다.

仙去한 선배들을 찾는 神遊는 즐겁기도 슬프기도 하다. 나의 좁고 짧은 생애에서일지라도 이 漫步는 限이 없어 이번에는 여기서 쉬겠다. 이 글에서 불의의 失念, 過誤, 欠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두서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았다. 관계자 여러분의 관용과 수정을, 그보다도 더 자세한 先後輩들의 모습이 많이 알려지기를 待望한다.

故人에 대한 묵념이 끝난 뒤에, 現會長 鄭萬永박사와 前會長 馬景錫사장이 기술자의 기업을 한바탕 토하고, 이어서 黃材景목사와 郭圭錫장로가 우리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이번 잔치는 좋은 계절을 잘 택하였다. 참석 한 前世紀 출생자로서는 崔熙松, 李熙暖, 朴東吉, 李德鳳, 吳楨洙의 諸老가 뜻밖한 모습으로 만좌를 든든하게 하였다. 그리고 超科技人이라 할 金容完, 元容爽, 趙炳俊 諸位의 참석도 특색이다. 그러나 최고령자인 尹日重翁을 비롯하여 전에 나오던 분이 꽤 안보여 마음이 쓰였고, 주최쪽의 임원은 보이나 시절의 탓인지 보고 싶던 후배들의 모습도 적어서 좀 섭섭한 느낌도 없지 않았다.

이날 아침에 내가 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전화했더니, 그는 딴 일이 있기도 했으나, 대뜸 元老니 長壽니가 싫다고 단전을 부렸다. 왜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구수한 칭호인 듯한데? 우선 元老가 쑥스럽다. 이말은 사전을 들쳐 보니 周宣王때(B.C. 827년경)에 最高官長을 지칭한 것으로서 老는 꼭 늙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日本에서는 老字의 벼슬이 對建시대에 유행했는데, 若年寄 같은 모순된 職名도 있었다. 물론 나이와

는 상관없는 것이다. 官職과 상관없는 故老라는 말은 나이에 重点이 있지만 故자는 환영안된다. 보통 元老院 등에서 이 말을 연상하는데 이 경우에도 老에는 의미가 없고 감투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그저 先輩 정도가 알맞는다. 근래 元老는 無能, 無力, 無功, 無用의 代名詞가 된 느낌이니 濫用, 誤用을 좋다고만 할 수도 없다.

先輩란 祖上의 縮圖이며 代理이다. 祖上, 先輩 없는 人間도 社會도 없다. 살아가는 方式이 代代로 전달되고 改造된다. 文化나 傳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제바탕이며 우리는 이를 선배로부터 물려받아 다듬고 불려서 후배에게 넘기고, 후배는 그리하여 선배가 된다. 아무리 불품이 없건 일은 거부할 수 없다. 주어진 것을 어떻게 다듬느냐가 문제이지 주어진 것에 대한 투정은 어리석은 것이다. 『네 運命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선배를 팔시하는 풍조가 汚染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파렴치한 自虐행위다. 며칠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外國교수가 日本과 韓國의 迅速한 발전은 그 儒敎바탕의 惠沢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近代化, 특히 科學技術發展 沮止의 元兇은 유교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指摘은 우리에게 反省의 기틀이 된다. 사실상 유교 바탕도 없는 나라의 近代化는 더욱 어렵다. 우리의 近代語 術語는 거의 유교 바탕—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꾸며진 것이니, 결함이 있음은 물론이나, 이 바탕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今일은 不可能했으며, 따라서 未來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바탕이건 또 다른 어느 已存 바탕이건 時代의 변화와 더불어 고쳐나가야 한다. 가장 保守의인 유교도 近代化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거늘, 하물며 아무리 零細하더라도 우리 科學技術界 先輩들이 科學技術, 그리고 우리 社會에 공헌한 바 없다는 해괴한 말은 전혀 事理에 어긋나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지난 날의 실낱 같이 가냘픈 조상의 과학기술을 대견하게 여긴다. 이는 실로 우리 조상들이 살기 위하여 生命에 깃들어서 간직된 것으로서, 무슨 일시적인 敎誨나 政略 따위로 生殺될 것이 아니다. 이 줄은 가늘어도 강인하다. 우리는 이를 이어받아 다듬고 불려서 후인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이 잔치에서 長壽의 경계선은 70세이다. 人生

七十古來稀는 1,200년전 詩人 杜甫의 名句이었지만, 10여년 전에 斗溪 李丙熙翁은 人生七十現世多라고 修正하여 그 稀少 가치를 부인했다. 近日까지도 내 동갑 중에는 體力, 知力, 모든 면에서 결코 젊은 놈에 지지 않는다고 억지를 쓰는 이들이 제법 있었으나, 차츰 차츰 脫落해 가고, 80대의 선배들에게서는 이런 客氣가 남은 분을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老兵은 죽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나는 이 잔치에서 아직도 꺾꽂이 제 1선을 지키는 老將들의 威容에 감격하고, 이로부터 희망의 기쁨을 느낀다. 그 뿐만 아니라 어쨌든 오래 살아 있는 老年에 대견을 느끼며 감사한다. 나는 젊어서 老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老衰는 本人 자신과 그 주위에 고통을 줄 뿐이어서 反價值的인 것으로 算定했었다. 그러던 내가 지금 와서 그때 산술이 아주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不完全한 評價이었음을 인정한다. 老年의 反價値를 죄다 승인하고도 그 年輪의 殘留價値만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元老니 長壽니는 과분한 장식이다. 나도 그 친구와 더불어 이런 어울리지 않는 허식은 사양하고 싶다. 두가지를 다 합쳐서 선배, 선배대접을 한다면 이 정도로 족하다.

年輪은 긴 세월을 살아 남긴 앙금이며 뒤따르는 이들의 唯一한 디딤돌이다 그 케묵은 모든 過程이 여기 凝縮되어 있고 욕망에 부푼 여러 미이라 도둑들에게 그가 될 미이라를 미리 提示해 주고 그리하여 그들의 放恣와 悔恨을 줄이고 위로하여 미이라를 딛고 넘을 새 길을 닦게끔 하리. 後人들은 이 돌조각의 稀少와 矮小와 脆弱과 粗雜을 탓하지 말라 이 돌조각은 제 나름대로의 全身供與인 것을 감사하라 그대들이 건널 수렁에는 이밖에 다른 쓸모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나니 그리하여 그대들은 이를 딛고 넘어 이 옆에 새 돌조각이 되어 놓이 나니 이리하여 돌더미가 생기고 여기에 우리의 歷史와 種이 結晶하고 우리의 未來도 여기서 이끌어 내나니

어느덧 해는 기울고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다. 잔치는 파하고 손과 주인들은 흩어진다. 분산한 젊은이들의 차에서 내뿜는 연기에 쌓여서, 메마른 몸매를 휘청거리는, 그들의 내딛는 발길은 어설피다.

그럼 선배님께, 후배들  
내년 이맘때 여기서 모두 모두 또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납시다.

(80-10-10)

## 追 錄

나는 여러해 전에 執筆로 건장에 지장이 생겨서 쓰는 일을 삼가고 있어, 이번에도 부탁받은 10매 쯤이야 하고 시작했더니, 하고 싶은 말은 벌써 1, 2회적에 미리 다 해버려서, 이번에는 추모목념을 올린 故人들의 私의 인상을 몇줄씩 쓰려했다. 그런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얹히고 설킨 추억이 꼬리를 물고 나와 몇번이나 고쳐 써서 겨우 끝냈다. 그러나 쓴 글을 校正하는 사이에,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선후배의 추억이 떠올랐다. 여기서 이 추억들은 덮어 둔다면 이 글은 절름발이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고쳐 쓰는 수도 없고, 또 아무래도 未完成이니, 우선 그분들의 이름을 追加하여 備忘의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나는 여기서 생각난 선배와 아울러, 오랫동안 못만난 후배들도 덧붙였다. KEC 회보에 실린 名單 중에서 正確한 것과, 앞 글에서言及한 바 있는 분에 대하여는 可及의 重複을 피하였다.

### (1) 作故한 故老들

玄檀 泰昌織物(藏前高工? 染織), 襄相彦 京城工專(工業傳習所 應化), 張翼鉉 全(全 染織), 韓辰範 서울工高同窓會長(全 全), 黃完秀 太平紡織(全 全), 吳學權 中央試驗所技員(全 全), 宋詰憲 京城工專(全 應化), 辛泰嶽 辨護士(全 木工), 張基命 中央工業研究所技士(李王職養成所 漆工芸), 孫昌植 自營(東京高工芸 機械), 曹応天 光元工大學長(미국 物理), 李元植 和信常務(京工專 建築), 金世演 自營(全 全), 張然采 自營(全 全), 金舜河 自營(全 全), 劉斗燦 同德교사(全 染織), 金理兆 서울大 工大교수(桐生高工 紡織), 徐廷翼(日本 名古屋

屋高工 紡織), 黃程哲 土木局長(京工專 土木), 金俊植 漢陽工大교수(日本鐵道 電氣)

### (2) 作故한 交友들

黃甲性 遞信部電務局長(九州帝大 電氣), 朴鍾洙 京城工專교수(東京工大 電氣), 李賢五 仁荷工大교수(京都帝大 工化), 洪學基 郡是製絲大田工場(京工專 紡織), 金孝燮 商工部纖維課長(全 全), 吳鍾汝 自營(全 應化), 韓性熙 京城工專(全 應化), 李鎬惠 釜山稅關檢査長(全 應化), 金慶淳(全 全), 金海卿 詩人 李箱(全 建築), 金衡七 自營(全 全), 李實郁 서울大工大교수(〇〇應化), 金龍泰 東洋工專강사(延專 數學), 崔応祥 農村振興公社顧問(九州帝大 農化), 金萬鍾 서울市燃料現代化委員(미국 燃料), 趙鍾瑀 漢陽工大교수(미국 金屬), 崔相韓國科學技術研究所員(東京帝大 水産), 玄京鎬 原子力研究所長(영국 電氣), 金淳赫 韓國熱管理協會(서울대工大 化工), 公龍俊 自營(京工專 土木), 金鎮元 韓一시멘트技師長(京都帝大 窯業), 丁榮植 漢陽工大교수(京城帝大 鉅山), 劉在晟 韓國機械社長(독일 機械)朴萬奎 高大교수(全南師範 植物)

### (3) 만난지 오랜 故老 및 知友들

鄭樂弼 參議院議員(京工專 應化), 林健舜 麗水女高교사(全 全), 朴典燮(全 全), 孫暘鉉(全 全), 吳明淑(全 全), 申鉉斗 交通部技術研究所長(全 全), 金性圭 大韓造弊公社(全 全), 閔泰鶴 朝鮮麥酒(全 全), 洪龍珍 서울工高教師(全 全) 玄得榮 京紡(全 染織), 姜禹鑒(全 全), 尹憲憲(全 鉅山), 金龍岩 自營(全 全), 白潤興 유니온 시멘트社長(全 全), 趙善煌 辨理士(日本 大阪大 釀造), 崔晃 서울市顧問(미국 化工), 朱大允 忠南大工大교수(日本 桐生高工 紡織), 金相悅 慶北大總長(京都帝大 工化), 李鎬植 商務部 度量衡所長(延專 物理), 張勉 미국(미국 機械), 崔在烈 漢陽工大교수(미국 金屬), 金舜敬 서울大文理大교수(미국 化學), 咸仁英 工業局長(미국 機械), 朴達祚 科学院長(미국 化學), 崔季淳 미국(早稻田大 金屬), 崔俊植 仁川女高교사(日本 廣島高工 應化), 崔宗仁 서울大工大교수(東京物理 物理), 禹鳳金 中央工研技士(中央試驗所技機業養成員 染織), 姜永稷 交通部工作廠長(東京高工 機械), 姜琮武 第一技術團會長(東京帝大 農業木工), 崔貞基 國會議員(東京工大 化工), 李宗日 明知大교수(東京帝大 電

氣), 洪鵬範 漢陽工大교수(日本 仙台高工 建築), 鄭鳳俠 서울대工大교수(廣島高師 數學), 崔基哲 서울대師대교수(미국 動物), 趙鼎九 三扶土建會長(工業傳習所 建築), 全啓相 京城工專교수(미국 機械), 閔宣植 프랑스(프랑스 物理), 李景南 미국(미국 管理) 吳秉鎬 東洋시멘트 技師長(東京物理 物理)

이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기억의 不完全性이다. 그리도 친하던 사람도 요긴하던 사건도 나 이와 함께 까맣게 잊어먹는다. 그래서 記錄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메모가 딱 질색이다. 日記는 계속한 일이 없다. 元來 우리나라는 技術기록은 아니하는 점잖은 傳統이 있어서, 썩 그러진 漢詩나 우습지도 않은 雜文 따위로 文集이 넘쳐 흐르고, 또는 彪大찬란한 創業史가 발간되어, 훑어 보면 정작 애쓴 일의 眞相이나, 人物의 활동에 관하여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學校에서 나오는 그 두툼한 명부에는 前職員을 빼버리기 일쑤다. 王朝時代에는 先生案이라는 前職者名單이 要職에는 꼭 備置되는 법이었는데 지금은 어림도 없다. 말레이시아 大學 講義室에서는 先任者의 이름이 벽돌에 새겨져 있어, 入室者에게 감회와 권위를 풍기고 있다. 여기 ○○은 失禮지만 이를 무릅쓰고 이것조차 내걸지 않으면 송두리채 잊어먹으니, 누가 메꾸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내놓았다.

作故한 故老 여러분에 대하여, 내가 본 기록에서 우리 近代技術者는 典圖局技師 徐相準, 劉漢容, 그후에 工業傳習所에 安衡中의 이름이 기억난다. 그다음이 中央試驗所技師 玄檀인데 이때는 工專과 傳習所가 試驗所附設이었다. 이분은 藏前高工 紡織科 出身인가 생각하는데 實務를 본 기록은 없었다. 裴웅은 내가 친했던 30년 초기에는 벌써 白髮老人이었다. 1909년에 傳習所를 나온 분이다. 우리 新式製紙技術의 선구자이며 전국적인 기술지도가 시행되었다. 韓辰範은 京城工專의 自稱 터주대감, 만년에는 咸平郡守도 지냈다. 나와는 20년이나 같이 지냈으니 할 수 있는 말은 물론, 못할 이야기도 많다. 辛번호사가 愛山선생과 더불어 우리 民族을 위하여 日帝와 끈질긴 鬭爭을 한 사실은 길이 靑史에 남을 것이다. 張然采선배는 내 高工 同年入

學 고 張永基군의 叔父이다. 張基命군은 國展審査員 經歷의 工芸家이다. 내 옆방에서 일했는데, 그 덕으로 나는 옷을 자주 올려서 지금은 耐漆性이 제법 생겼다. 노래 또한 名唱의 美男子이었다. 그의 同僚中 고 金鎭甲翁도 名人이었다. 孫昌植社長은 中國上海, 香港서 技術者로, 事業家로 君臨했고, 그 餘德을 고향에 베풀어 光州醫專(現 全南大醫大 前身)을 寄進하였다. 50년대 그의 後期 활동무대인 香港서 만났을 때, 나는 銳利한 발명가이며 기계가인 그를 淸楚한 기민한 사람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툼하고 원만한 好男子이었음에 놀랐다. 그의 아우 孫昌煥박사도 같은 풍신이어서 고 李承晚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待醫와 保健部長官을 지냈다. 曹應天박사는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으로 眞空管을 研究하였다. 徐社長은 長身의 기술자기질, 기술 출신으로는 드문 屈指의 事業家이었다. 金世演翁은 당시 構造力學計算에 第1人者, 金俊植교수는 獨學으로 電氣專門家가 되고, 특히 數學에 達人이며, 利川電機를 오랫동안 도왔다.

李賢五교수는 늘씬하고 뚱뚱한 체구에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고무工業研究와 지도로 一生을 마쳤다. 黃甲性군은 내 후배로서 그의 선배인 李載坤군과 遞信部電務局長 자리를 들락날락하였고, 그 후리후리한 체격에 開放의 인성격은 部內에서 人氣를 모았다. 陸英洙纖維試驗所長과는 동서지간이다. 朴鍾洙군이 工專교수로 있었을 때, 초창기에 全啓相, 黃義俊, 廉永夏 등 젊은 英才들이 教授가 되어 학생들을 기쁘게 했다. 그는 잠만 나면 교수실에서 학생들과 라디오를 만지고 있었다. 그의 岳丈인 金奎善翁은 崔士烈翁과 傳習所 동기이며 전문학교는 달랐으나 줄곧 같은 分野에서 活動했다. 朴君이 在職中 돌연 죽어 나는 크게 실망했다. 기술도 그러려니와 빈틈없는 실무가이었다. 金淳赫, 趙鍾瑋 두분은 모두 내 후배요 동료이었다. 모두가 有用한 人材이었는데 早世하였다. 玄博士의 조세도 슬프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의 선배에 대한 극진한 태도에 감탄한다. 李寅郁교수는 滿州 昌光硝子工場에서 일하다가 귀국했다. 그때 唯一한 板 유리技術者로서 촉망이 컸는데 고생이 너무 심했던 관계인지 환도 직후에 全身마비로 돌아갔다. 金萬鍾군은 石炭利用에 熱心家이다. 지

금 연료라면 모두 눈이 둥그래지지만, 30년초에는 「그까짓 땀나무」 하고 모두 코웃음쳤다. 事變前까지 내가 알기로는 연료문제의 重大性을 인식한 사람은 고 朴榮壽군, 그리고 全民濟군 정도로 생각된다. 全사장은 학교를 졸업후 合成燃料에 대한 執念으로 차 있었다. 환도후 金萬鍾군이 나를 자주 찾아왔는데, 그때 話題는 無煙炭의 가스化, 無粘結劑 무연탄연탄 제조문제이었다. 燃料鉅物研究所가 大韓電石의 後援으로 開設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無煙炭코크스를 만들었다. 얼마뒤에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는 石炭 연소지도에 나섰다. 뚱뚱한 巨軀에 부지런하고 끈질긴 사람이었다. 丁교수는 採鉅學에서 권위자이었다. 金, 吳 두 기사장이 이 두 시멘트 공장을 오랫동안 질머지고, 마침내 金君은 병을 얻어 목숨을 잃었다. 그래도 金君은 시멘트연구로 工學博士가 되어 名牌가 새겨져 남았으나, 吳君은 그런 것조차 못견뎠다. 吳君이 日本서 나와서 동창인 宋啓範군을 도와, 해방직후 그 혼란, 궁핍 중에도, 下宿房 구석에서 한글텔레타이프를 發明 試作했다. 그의 재주와 노력은 내 동기며 시멘트계의 경험자인 草川新太郎군을 감탄케 했다. 洪學基군은 신중하고도 너그러운 두툼한 체격의 好人이었다. 50년대에 大田서 名士, 물론 진짜로, 사변중 여러 技術者들을 도왔다. 韓性熙군은 51년 1.4후퇴때 元山서 1ST로 南下, 巨濟島에 上陸, 釜山, 濟州島로 轉轉하던 중 客死했다. 원래 肺가 약했다. 劉在晟박사는 우리 機械工學과 機械工業의 선구자이다.

健在를 믿는 분들에 대한 感興을 약간 적어 두겠다. 이제는 거의 환갑을 넘어 가졌고 많은 친구는 나보다 年長이니 궁금하다. 禹鳳金女史는 오랫동안 中央工業研究所 染織工場에서 주인노릇을 했다. 어려서 멀고먼 北關에서 機業養成生으로 뽑혀 들어와, 같은 직장에서 일보던 夫君의 殉職을 目見하고, 守節하면서 親弟 禹範植교수(서울大工大 纖維)를 길러냈다. 며칠전에 禹교수가 停年에 이르렀으니 感懷가 어떨지? 崔宗仁선생은 퇴직시에도 氣力이 강건한 분이어서, 相對性原理의 別途証明을 案出한 力作研究論文을, 억지로 나에게 읽혀, 내 鴨을 논문프린트 무게만큼 빼게 하였다. 成大강사 시에는 가끔 만났는데 朴典燮군은 悠悠自適, 하이킹과 書道를 즐기고 있다 한다. 金性圭군은 製紙分野에서 50년대까지

花形, 그 技術指導 功勞는 크다. 閔君은 釀造로 一生을 애태웠다. 功名을 流水에 묻힌지 오래나 行踪이 묘연하니 어찌된 일인지? 그의 親弟 閔泰鵬군(化學)은 健在한 줄 안다. 玄得榮선배는 내가 1923년경 忠信洞 양사골댁에서 뵈웠다. 나는 康承億선배를 비롯하여 同門 數人이 모여 高談峻論, 杯盤이 낭자하였다. 나는 어려워서 길을 못피고, 감히 술잔을 받지도 못했다. 解放後 뵈우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否認하였다. 朱교수의 令嗣 朱忠蠶박사가 延大 生化學교수이니 그 安否를 알 수 있을 것이다. 白사장은 가끔 山에서 만났는데 요즈음은 소식이 없다.

崔晃박사는 내 高工 후배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33년에 미국 로체스터대학에서 化學工學으로 Ph.D.를 획득한 사람이다. 學位論文은 管内流體의 熱傳達實驗研究로 기억하고 있다. 홀쏘 큰 키의 好男子다. 사변중 서울시 水道戰災 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中國, 日本, 지금은 아마 미국서 活動하고 있는 國際的 技術人이다. 그의 先親 崔在鶴선생은 내 恩師이며 그 시절에는 매우 드문 旅行家이었다. 또 그의 祖父는 萬宗一翁을 著述한 초기기독교학자이다. 姜禹馨군이 어렸을 때 나는 그의 두 兄과 친했다. 長兄 世馨老가 土地調查局員으로 全國을 누볐을 적에 寫眞 및 印刷術을 배워서 一生 동안 工專서 이 일을 맡아했다. 대단한 酒黨이어서 이때문에 天命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듣고 있다. 李鎬植군은 軍政때 친했다. 미국 표준국서도 같이 지냈다. 그가 商務部度量衡所長이 되어, 日本서 旧韓國시절에 뺏어간 國際度量衡原器를 機敏하게 되찾아온 功勞는 길이 기념해야 할 사건이다. 그는 당시 政界의 巨人 金度演박사의 사위였는데, 사변중 行方不明이 되었다. 全啓相박사는 그 親弟 全應相군(서울大工大 化工)과 더불어 시애틀에서 잘 지내는 줄 안다. 洪鵬義교수도 캐나다에서 老後를 安樂하게 보내고 계시다 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중 몇분은 生死조차 不明이다. 그들은 少時에는 英才로 촉망되었고, 靑壯年에는 全身을 職務에 내던져 多少의 成功 또는 失敗, 非難 또는 名聲을 얻었는데, 이제 그저 健康과 幸福을 빌 뿐이다.

끝으로 거듭 말하거니와, 이 글은 내 醉中漫歩의 所産이다. 따라서 次序도 長短도 뒤죽박죽이

다. 列挙한 분들과 그의 職脚도 내게 준 印象的  
이었던 面 위주로 적었고, 또 자세한 考證을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특히 公式的인 것은 一  
切 不顧했다. 整然한 기록은 後人들에게 부탁한

다. 이 글로써 나와 이분들의 親疎를 가린다는지  
또는 그 위치로 評價를 가늠하는 일은, 내 本意  
와 어긋난다는 것도 豫告하여 둔다. (完 1980-10  
- 4 )